

사진 : 박태문 요셉(유정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22주일

제1독서 신명기 4,1~2.6~8

화답송 시편 15(14),2~3.7.3.4~4.7.5 (◎ 1가)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1.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2.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3.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야고보서 1,17~18.21~22.27

복음환호송 야고 1,18 참조

◎ 알렐루야.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복음 마르코 7,1~8.14~15.21~23

영성체송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부산교구
News & Focus
유튜브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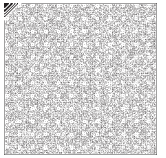
가톨릭라이프부산
www.catholicbusan.or.kr

▶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usan.or.kr - 알림과 소식 - 가톨릭라이프부산)



틀 속에 갇혀 버린 하느님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파와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규정으로 사랑이신 하느님을 틀 속에 가둬버립니다.

원래 법이란 어떤 법이든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인간보다 우선일 수 없고 인간 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하느님이 내려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의 근본 가르침이 사랑임을 기억할 때, 만일 우리가 법 조문이나 관습, 그리고 세세한 규정에만 매달려 있다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파와 율법 학자들처럼 모순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계명인 율법은 하느님이 모세와 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은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율법이 사랑이신 하느님 보다 삶의 걸모습만을 소중히 여기는 도구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이 사라지고, ‘사람의 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사람들을 속박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많은 규정들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찍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여라!”

법이나 규정은 양심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지켜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 본당 활동, 교무금, 건축비 납부, 판공 성사 등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

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이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라면 2000년 전 하느님을 자신들만의 틀 속에 가두어버린 바리사이파와 율법 학자들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최요섭

요섭 신부
울하성당 주임



주교님의 은사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사제는 청하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어렵다는 것도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9.3(월)~4(화)
최요섭 신부(울하성당 주임)
9.5(수)~8(토)
송승국 신부(토현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9.4(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대연성당 청년레지오 '성 마리아'

9.5(수) 본당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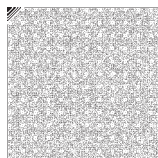
출연 : 고정미 로즈마리(우정성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9.7(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우리 찬양사도 출연 : 김성필 바실리오



요즘 '워라벨'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일과 일상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일컫는 영어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이나 취미 같은 개인의 여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쟁과 성과에 내몰린 현대인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잃지 않으려는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곳이 '일과 일상'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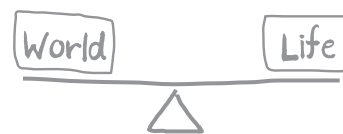
올해 더위가 유난했던 것은 지구온난화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남혐', '여혐'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일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 아닐까요? 이른바 '갑질'이란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균형 잡힌 역할분담 대신

한쪽의 입장만 강요하는 데서 빚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세대 간에도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갈등을 빚는 일이 많습니다. 지구 한쪽에선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음식쓰레기가 넘쳐나는 이 불균형을 하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인기 있는 TV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름의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의 품속에 안겨 상처를 이겨내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아냅니다.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자연의 질서대로 욕심 없이 산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닿지 않은 자연은 하느님께서 주신 균형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런 자연의 품에서는 욕심으로 비롯된 세상의 상처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살아가는 이치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이 쓴 책과 하느님이 지으신 자연 중 어느 곳에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신앙인의 생활은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주신 질서와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워라벨'은 하느님과 의 일치를 위해 하느님이 내신 세상(World)과 나의 일상(Life)이 균형(Balance)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하느님의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그런 곳이라야 하느님께서 편히 머무르실 것 같습니다.



■ 탁 은 수 베드로

광안성당 • 언론인 fogtak@naver.com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은 1868년 무진년 병인박해의 일환으로 부산 동래지역 신자 공동체 중 8분이 순교하신지 15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3회에 걸쳐 '부산교구의 복자와 순교자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사업', '순교영성을 본받으며'라는 주제로 글을 실는다.

1. 부산교구의 복자와 순교자들

부산지역에서는 1866년 병인박해에 이어 1868년 무진년에 동래지역의 신자공동체에도 박해가 일어났다. 박해로 인해 신자들은 기장의 장안으로 도주해서 3년을 살다가 다시 호계의 산골 수박골로 피신했으나 결국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같은 해 8월4일(양력 9월 19일) 수영장대에서 이정식 요한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정식의 대자였던 양재현 마르티노를 비롯하여 함께 옥에 갇혔던 여덟 분이 군문효수의 극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 후 명장동에 묻혀있던 이정식 요한 회장 가족 네 분의 무덤만이 조사 확인되어, 1977년 9월 19일 오류대로

이장하여 '부산 순교자 묘소'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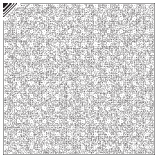
현재에는 네 분의 무덤 외에 다른 네 분의 무덤이 가묘로 단장되어 있으며, 특히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는 2014년 8월 16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고 미구에는 부산교구의 성인으로 공경을 받게 될 것이다.

1863년경 다블뤼 주교가 자신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래 신자공동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

“동래 지방을 찾아보아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우 집단은 어떤 노인(회장 이정식 요한)의 열렬한 신앙의 덕으로 생겼는데 생겨난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이 교우 집단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곳에는 예비신자가 아주 많은데, 그중에는 유능한 남자가 여럿 있습니다.”

■ 전수홍 신부(오류대순교자성지사목) jubo@catb.kr

가정을 세우는 '성요셉아버지학교'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을 세운다!” “아버지, 당신은 가정의 수호자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내건 교구 성요셉아버지학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정체성 등을 재조명하는 ‘아버지회복운동’이다.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도와,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가정 안에서 상실된 기도와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인한다.

교구장 주교님의 큰 관심과 가정사목국의 기획으로, 지난 2012년에 봉사자양성을 완료하고 그해

11월에 ‘성요셉아버지학교 봉사단’을 창단하였다. 이후 2013년 4월,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기에 걸쳐 3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많은 수료생들이 성요셉아버지학교야말로 진정한 소통-사랑-섬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는 ‘참된 인생학교’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녀, 대화와 기도, 그리고 가정과 행복 등을 통합적으로 조명해주므로, 세상 그 어떤 융합학문이나 평생학습보다 상위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료생 아버지들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5주

의 기적’, ‘참교육의 시간’, ‘일생에 꼭 한번은’, ‘무면허 아빠’ 등과 같은 제목의 소감문을 통해, 성요셉아버지학교에서 받았던 깊은 감동을 전하였다. 이는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요,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는 환호가 아닐 수 없다.

성요셉아버지학교는 종교교육이나 교리교육이 아니라 순수한 가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 없이 자녀를 둔 아버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이 주입식 강의로 진행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음이 큰 매력이다. 5주간동안 진행되는 성요셉아버지학교는, 수십 년의 가정생활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 아닐까?

■ 가정사목국



천주교부산교구
성요셉아버지학교

제1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일시: 10/13(토)~11/10(토), 11/11(일)

(5주 과정, 매주 토요일 15:00~21:00)

접수: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종교무관)

문의: 010-6408-6111, 010-3460-0696



338

어릴 적 성당을 잘 다니던 아들이 커서는 신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을 흠송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더 큰 인내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랑하십시오”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왜 사랑을 강요하느냐?”라고 되물을지 모릅니다. 헌데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하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한 걸 왜 굳이 말로 하나요”라고 되물을지 모릅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사람과 사귀느냐는 별개의 문제지요. 하느님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느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대신해줄 수는 없는 거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다면 하더라도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는 있지만 사귀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목마름을 자주 청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그리워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하기까지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내적 공허함을 더 깊이 느껴야 하는 지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가도록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찹찹하지 않습니다”

■ 임성근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pantaleon@naver.com

한국청년대회(KYD), 교구 청년 참가



우리 교구 청년 42명은 지난 8월 11일(토)~15일(수) 서울대교구 주관으로 열린 한국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축제인 '제4회 한국청년대회'에 참가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청

년들은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성지순례, 수도원 체험, 명동 문화축제 및 청년 콘서트, 홈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대회 일정 중에 황철수 주교는 교구 청년들을 위해 '주교님과 함께하는 교리교육과 미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축하합니다!



서면, 셋별 Pr. 3,000차

7월 29일(일) / 주임 : 민병국 신부, 김재관 신부, 단장 : 남정순 베로니카



구포, 상지의 좌 Pr. 2,000차

8월 8일(수) 주임 : 이승훈 신부, 단장 : 이대겸 요셉



전하, 다윗의 적루 Pr. 2,000차

8월 14일(화) 주임 : 윤정환 신부, 단장 : 김연수 요셉



괴정, 하늘의 문 Pr. 2,000차

8월 15일(수) 주임 : 박근범 신부, 단장 : 김재남 오틸리아

평생교육원, 전례조각초 전시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 박종주 신부)은 지난 8월 10일(금)~12일(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센터에서 '전례조각초, 그리스도의 빛을 담다'라는 주제로 전례조각초 전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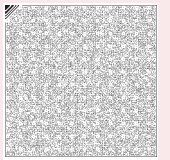
8월 18일(토)~19일(일) 은혜의 집 성소국(국장 : 김태형 신부) 주관

부산가톨릭문인협회, 제8회 문학캠프 개최

8월 11일(토) 은혜의 집 지도 : 오중섭 신부 회장 : 배계선 브루노



9월의 도서



고요한 종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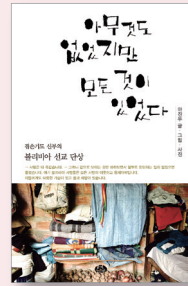
장정옥 지음 | 성바오로출판사 | 13,800원



이 책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역사적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황사영이 '백서'를 쓰게 된 배경과 그의 아들 경한, 그리고 정하상의 이야기를 '여수리'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펼쳐놓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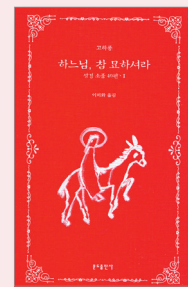
마진우 지음 | 벽난로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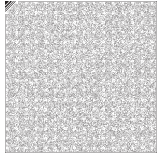
물질적 영신적 황무지 볼리비아에서, 선교 사제로 있으면서 저자 마진우 신부가 체험한 것을 그의 글과 그림과 사진 속에서 강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결핍한 상태에서도 영혼이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하느님 참 묘하셔라

고하풍 지음 | 이미화 옮김 | 분도출판사 | 9,000원



이 책은 성경의 짧은 이야기 마흔을 골라 그 상징과 의미를 일상과 연계하여 맛깔스러운 언어로 풀어놓습니다. 저자 고하풍 마리아 수녀는 '묘(妙)'자를 중심으로 깊이 있고 정감 넘치는 묵상을 통해 우리를 성경 속으로 안내하여, 생명의 하느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인 갈등을 풀어 주고, 그 말씀에 깊이 맞들이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신 월 모임

· 9.9(일) 13:30 · 신학대학
문의 :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9월 행사

· 9.28(금) · 전주교구 전동성당
대상 :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1번 이상 참석자에 한하여 접수 / 회비 : 1만 5천원(입금 : 부산은행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신청 : 9.14(금)까지(신청순) 팩스(629-8764) 및 홈페이지 / 문의 : 629-8760(성소국)

9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부산] 9.16(일) 15:00~18:50
100% 인터넷 접수 / 신청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울산] 9.30(일) 14:00~17:50
100% 인터넷 접수 / 신청순 3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 (052)201-6505, ulsan.catb.kr(울산대리구)

제1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13(토)~11.10(토) 매주 토요일 15:00~21:00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 (종교무관)
접수 : 8.15(수)~9.30(일), 신청순 49명
문의 : 010-3460-0696, 010-6408-6111

제5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1(목)~11.8(목) 매주 목요일 10:00~15:00 (5주 과정) · 부산가정성당
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 (종교무관)
접수 : 8.15(수)~9.30(일), 신청순 49명
문의 : 010-9907-1767, 010-2202-0470

본 당

중앙성당 설립 70주년 기념행사

기념미사 : 9.9(일) 11:00 교구미사
기념음악회 : 9.17(월) 19:30 대성전
문의 : 246-4284 / 당일 주차장 이용불가

옥동성당 설립 25주년 기념행사

· 9.9(일) 10:00 성가경상 시상, 11:00 기념 사진전 오픈(연말까지)
· 9.13(목) 20:00 순산석 주교 기념특강
· 9.16(일) 10:00 설립 25주년 기념미사
13:30 성서 골든벨, 15:00 기념 음악회
문의 : (052)261-6011

대연성당 성령목상회

· 9.10(월)~13(목), 17(월)~19(수) 19:00
문의 : 622-0635, 010-3508-0865

우동성당 교육관 증축공사 시공사 공모

공모마감 : 9.7(금) 18:00까지 사무실에 접수
현장설명회 : 9.10(월) 17:00 / 문의 : 747-4711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지체장애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9.4(화) 14:00 · 부곡동 사회사목국 4층 강당
주례 : 인상현 신부 / 문의 : 517-0613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일미사

· 9.4(화) 11:00 · 중앙성당 / 대상 : 전 신자
주례 : 광용승 신부 / 문의 : 466-2290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9.7(금) 11:00 · 신선성당
대상 : 회장 및 지도교장 / 문의 : 466-2290

부산ME 소개모임

울산 : 9.9(일) 14:30 복산성당
부산 : 9.10(월) 20:00 남천성당
361차 ME주말 : 10.12(금)~14(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부산가톨릭신학원 2018년 2학기 심화과정

개강 : 9.7(금) 매주 금요일 14:00~17:00 (9.7,14,21, 10.5,12,19,26, 11.9,16,23 총 10회)
수강료 : 20만원 / 대상 : 부산가톨릭신학원 졸업생
1교시 : 성령안에 사는 우리들 - 김중훈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 2교시 : 조선의 문화와 천주교 - 손숙경 교수(동아대학교)
· 부산가톨릭신학원 / 문의 : 464-7591

부산교회사연구소 제100회 학술연구발표회

· 9.8(토) 14:00 ·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문의 : 462-1784
- 19세기 천주교의 수용과 지역사회의 방향 : 김숙경(부산대)
- 일제 강점기 가톨릭 교회의 한글 표기법 이해 : 엄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 김윤슬(부산대)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 성명(본당,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자세히), 제대일 / 활동 :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51,20평)
문의 : 462-1870(행정실)

해양사목 외국선박 방문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화, 금요일 14:00~17:00 / 문의 : 469-7658
조건 : 외국어 회화 기능자(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 게재 기간 2018년 10, 11, 12월(3개월)
- ▶ 문의 629-8752 ▶ 접수 신청순 마감 이메일(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 금액 1회 6만원(기본 3회 18만원)
- ▶ 서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성령봉사회

- 젊은이 기도회
· 9.3(월) 19:30 전포성당
· 9.5(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 치유기도회
· 9.5(수) 11:00~16:00
중식 제공, 버스운행표 참조
- 철야기도회
· 9.7(금) 22:30~8(토) 04:00
강사 : 송재현 신부
- 제18차 무료 치유대피정
· 9.14(금) 22:30~15(토) 17:00
철야기도회 연장(철야버스 동일은행)
미사, 세면도구 준비(참가비 없음)
- 29기 성령목상회 심화과정 2단계(1차)
· 9.16(일) 10:00~15:50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9주간(54일)기도(차편은 수요치유기도회와 동일)
· 10.3(수)~11.28(수) 매주 수요일
회비 : 2만원(기도서, 봉헌초 포함)

오순절평화의미를 후원회 미사

감해 : 9.3(월) 11:00 임호성당
울산 : 9.4(화) 11:00 아음성당
문의 : 782-0765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일미사

· 9.4(화) 13:00 연합팔기도, 14:00 미사
· 부산성당 소성전 / 문의 : 010-2428-5785

울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일미사

· 9.5(수) 14:00 · 부산성당 소성전
지도사제 : 이주홍 신부 / 문의 : (052)201-6509

파티마의세계사도직 9월 목주기도 100단

· 9.3(월), 10(월) 09:30~ · 푸른군대 경당

첫 금 철야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철야 : 9.7(금) 21:30 푸른군대 경당
강사 : 김명철 신부(광주대교구)
신심 : 9.8(토) 09:30 기도, 11:00 미사 - 생명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 있음
문의 :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



9월호 바로보기

혼인미사 예약 및 예식 안내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혼인미사 예약 접수 : 9.2(일) 09시부터

문의 및 접수 : 051)441-3500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주)씨피여행사

1. 10/2 동유림 성지순례 12일 LH405만원
2. 12/7 이태리일주 9일 선착순 LH275만원 (지도신부님 : 안현철 / 이태리 신부님)
3. 11/12 제주성지순례 3일(2인1실) 36만원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

엘치과

입플란트 치주 전문 최홍배 (베드)로
치아교정 전문 성지현 (아네스)
751-2882
해운대 이마트 옆 센트럴메디타워 10층 (중동역 7번 출구)

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어 협성주단·한복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
646-1123
010-3594-2137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경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장기요양보험지정 뇌졸중·치매 재활전문 노인주야간보호

활기찬 성모재활센터
주 만 구(스테파노)
639-1008
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

장정애 한복디자이너 동국주단

최 상 희(안나) 장정애(요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997-0707, 010-9243-5776

라파엘여행사

10/21, 11/11 나가사키 4일 94만 9천원
10/14, 11/11 성모발현지(다낭)
5일 129만원 (4명 이상 출발)
11/9, 12/20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11/12, 12/10 성모발현지(파티마, 루르드) 10일 299만원
성지순례 (02)778-8565

눈시원안과

이현석(분도)
전. 코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631-6622
상곡회소 옆 이샘병원 3층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DB금융투자

주식 및 상품 투자운용상담
팀장 정기준 (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10/2 동부유럽 12일 390만원
10/3 성모발현지 12일 425만원
10/10 코카서스 2개국 13일 448만원
10/14 발칸반도 12일 365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Magnificat(마니피캣) 2018년 정기공연
〈언제까지나〉

· 9.14(금) 19:30 · 신선성당 성전
문의 : 418-8301

가톨릭사진가협회 회원 모집

대상 : 사진을 통한 전교활동에 관심 있는 분
신청 : <https://cafe.naver.com/kpcpa>
(NAVER에서 부산가톨릭 사진가협회 검색)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9.7(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해외선교후원금 마련 바자회

· 9.8(토) 10:00~18:00 / 문의 : 581-3103
· 예수성심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사랑의씨든수녀회 <말씀과함께> 기도모임

· 9.16(일) 14:00 · 동아대 부민캠퍼스 근처
대상 : 19세~35세 미혼 여성
문의 : 010-7152-8004

성분도은혜의집 음악피정

· 9.20(목) 10:00~16:30 · 성분도은혜의집
대상 :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
문의 : 753-5744 (선착순 접수)

꿈을 통한 자기내면 여행

개강 : 10.1~12.3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내용 : 참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 무의식의 자기 통합작업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0.29(월)~11.13(화) · 서유럽, 발칸
· 11.22(목)~12.5(수) · 서유럽, 스페인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피정 : 9.16(일)~18(화), 11.9(금)~11(일)
시작 17:30, 9.9(일)~13(목), 10.3(수)~7(일) 시작 14:00
에니어그램 여정 (강사 : Sr. 박정자 외 2명)
기본1, 2과정 9.16(일)~18(화) 시작 15:00

다네이 글방 (하느님을 향한 책임기와 글쓰기)

· 매월 두번째 금요일 14:30~16:30(무료)
· 호브의 집(부민동) / 문의 : 010-9503-1127

성심영성센터 색연필 이큰화 모집

· 수요일(9.12), 목요일(9.13) 14:00 (8주간)
· 성심영성센터 / 수강료 : 20만원(재료비 별도)
문의 : 010-3072-3103(정순희 수녀)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무료 치유 피정

· 9.7(금) 18:00~9(일) 15:00 / 무료 숙박
문의(010-2373-0125) : 부산역(10:10)-서면우체
국 12번 출구(10:20)-시청 건너 4번 출구(10:25)-
동래 전철 3번 출구(10:50)-감해시청 건너(11:10)

성골롬반 평신도선교(해외) 관심자 모임

· 9.9(일) 14:00~17:00 · 평신도선교사센터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도보 5분)
문의 : 010-5003-5628, clmkorea@gmail.com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피정 : 9.7(금)~9(일) / 회비 : 18만원
색지힐링피정 : 9.14(금)~16(일) / 회비 : 18만원
문의 : 010-3340-0201, 010-4993-4394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 9.14~16, 10.19~21, 11.16~18, 12.14~16
금 14:00~일 14:00 / 피정비 : 15만원(2박 3일)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신부 / 문의 : 010-2816-1986

한티순교성지 피정

[주제] 그대 어디로 가는가 (순례음악)
· 9.15(토) 10:00~16:00
강사 : 홍승란(한티순교성지)
[주제] 한티가는길 (순교영성)
· 9.15(토) 16:00~16(일) 13:00
강사 : 라마리아 수녀(한티순교성지)
문의 : (054)975-5151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예수회	9.8(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9.9(일) 14:00~17:00	수녀원 해바라기방	010-8551-331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9.8(토) 14:00(9일) 10:00, 14:00	부산 본원 및 원하는 장소	010-9319-1690
노틀담수녀회	9.9(일) 14:00~16:00	부산 노틀담유치원	010-6866-2141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수시상담	부산 본원	010-9199-4995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 9월 10일(월)~14(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ac.kr) 참조

입학처 : 051-510-0701~4 / www.ipsi.cup.ac.kr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음악회

일시 : 9월 10일(월) 19:30
장소 :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대성전
주최 : 오룬대 순교자성지 / 주관 : 부산가톨릭음악협회 / 후원 : 천주교부산교구 평신도협의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20일(목) 11:00 장소 : 오룬대순교자성지

부산교구 순교자들의 치명 150주년을 맞이하여 현양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하시어 순교신심을 복돋아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랑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성(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선비목집 목 정식, 목 오리 정식 골때목, 목 부침개, 목 쟁반국수 목 수제미, 목 새싹비빔밥 ※ 코다리찜 정식 (코다리찜, 목셀러드, 목제)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차안</p>	<p>매매·교환·위탁·폐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상사 대표 조남철(베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제네시스, 아반떼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p>	<p>모니카주단·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전문 향위식(레오) 김필분(모니카)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151, 152호(1층 4호문 중간)</p>	<p>라이프치과의원 전문과목 / 임플란트, 틀니 (65세이상 보험 임플란트, 틀니 환영) 치의학 박사, 최 제 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743-3334 31번 중점 맞은편 8층 건물(2층)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식카드소지자(수급자) 무료제작, 일반90%혜택</p>
<p>바티카노 성물, 전례용품 전문점 디자인 목주반지(금, 은) 517-4224 010-5488-4224 가톨릭 신학대학 앞</p>	<p>이삿짐은 우리트랜스로 582-1414 010-4042-8662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 변성만(요한)·권명숙(로사리아)</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p>	<p>전 차종 신차구매 상담 및 단순문의 환영 현대/기아/르노삼성/쉐보레/쌍용 영업팀장. 이 건 기 (빈첸시오) 010-8502-7514 반값할부/정상할부/리스/렌터</p>	<p>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글라리) *교우 특별 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도 4, 6번 출구(1층, 빨간역 간판)</p>